

# 국가적 목표달성을 위해 업계 중지 모을터...



**지난** 1년은 21세기를 앞장서 열어가  
는 우리 정보통신계에 있어서  
무척이나 변화가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통시시장의 대외개방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고도 정보화사회의  
조기진입을 위해 각종 관련 법규의 제·  
개정을 서두르는 등 사업환경 조성에 심  
혈을 기울였고, 업계는 업계나름대로 정보  
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노하우 축적  
과 대외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더없이 다사다난했던 경오년의 한  
해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미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돌이켜 볼 때 그동안 우리 정보통신계  
는 컴퓨터의 보급과 기반통신시설의 확충  
및 국가기간전산망 구축등을 위해 산·학  
·연·관 모두가 총력을 경주한 결과 괄  
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국의 전화회선이 1,500만을 돌파하는  
가 하면 반도체 및 전전자교환기 부문에  
서 세계 유수의 생산 수출국이 되었고, 정

보통신기술과 운용능력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도성장이 우리 정보통신인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바탕위에서만 가능했다는 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전산화등 정보통신부문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민관이 합심노력을 다해왔지만 이룩해 놓은 것에 비해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난관들이 산적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통신시장개방문제, 통신사업구조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경쟁체제로의 전환,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기술개발, 장단기 인력수급대책의 강구, ISDN의 조기구현 등 어느한가지 시급하고 어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협회는 작금의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의 사업목표와 활동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제도환경의 개선입니다. 현행규제 위주의 전기통신관계법규를 시대적 환경에 맞게 조장법 체계로 전화토록 하여 민간사업영역의 확대 및 시장경쟁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민간 DB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인규베이션을 조성해 나가는 것으로 DB 산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세제, 요금, 회선사용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협회산하 EDI연구협회의회를 중심으로 국내 EDI 환경연구 및 표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으로써 EDI표준화는 물론 이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넷째, 통신시장의 대외개방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UR협상 및 한미통신협상에 대한 민간차원의 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입니다.

다섯째, 정보통신산업분야의 기초통계를 작성함으로써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은 물론 민간기업의 장단기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는 것 등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협회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 산·학·연·관 각계의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민간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사결정은 협회활동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고도 정보화사회 구현이라는 원대한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도 민·관의 가교로서 업계의 중지를 모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작정이며, 대국민 정보마인드 확산을 위한 홍보자료로서의 역할에도 적극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활동에 각계의 각별한 성원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1991년이 정보통신산업인 모두의 건강하고 보람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991. 1. 1

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 韓泰熙